

## 최인기 광주시장 건강진단 살펴

—본회 검사 기능도 돌아봐—



◀ 광주직할시장 일행이 이홍량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 방사선검사 기능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인기 광주직할시장이 강영기 부시장, 허진홍 보건사회국장과 함께 健協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18 광주사태 부상자에 대한 부상정도 판정을 위해 건협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최시장 일행은 이홍량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 방사선 검사 기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건협 광주·전남지부 검사시설을 돌아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 10월 “위장질환” 건강관리 공개강좌

10월 18일 오후 2시, 홍보관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10월달 건강 관리 공개강좌를 10월 18일(화요일) 오후 2시부터 홍보관에서 실시한다.

이날 주제는 “위장질환”으로 현대인의 건강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위장질환의 다양한 원인, 치료방법, 예방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질문받고 답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제 24회 서울올림픽 기간 중인 관계로 공개강좌를 개최하지 못했다.



## (농협조합원 건강검사)

전북농협 지회장, 검사현장 방문—

健協 전북지부가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간염검사 12,000명, 자궁암검사 7,500명 등 총 19,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되어 온 이번 검사는 이동검진 차량을 동원, 읍면의 단위농협까지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9일에는 신석호 농협 전라북도 지회장이 부안군 위도 단협건

강검사 현장을 방문, 김재정 전협 전라북도지부장과 함께 둘러보았다.

신지회장은 지역주민과 환담하면서 농사에 대한 어려움과 농협에 대한 도움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한편 농민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농협조합원에 대한 건강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전협 이동검진반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직원 연수교육 실시

—본부 및 시·도지부별로—



健協은 '88년도 하반기 직원연수교육을 지난 9월부터 10월에 걸쳐 본부 및 각 시도지부별로 실시하고 있다.

각 시도지부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토록 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지부별 연수교육에서 직원들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관리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 부산지부 공로직원 감사패 수여

—부산 제6지구 의보 산하 근로자 건강 검사공로 인정 받아



부산 제6지구 의보조합으로부터 지난 8월 31일 前전협 부산지부 사업과장 배정구(현 서울지부 홍보관장)와 부산지부 정남호 주임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 감사패는 전협부산지부가 부산 제6지구 의·보조합 산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염 예방사업 및 종합 검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의 뜻으로 부산 의·보 창립기념일에 수여된 것이다.